

순천 스윙교 무면허 건설업체가 시공

안전사고 우려·하자공사 어려워 감사원 “교량전문업체 의뢰했어야”

순천의 도심 하천에 설치된 스윙교(접는 다리)가 면허가 없는 교량 제조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관급자재 구매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에 무면허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하자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체를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조달청에 의뢰해 스윙교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12억3000만원에 수의 계약을 하고 순천역과 아랫장을 잇는 동천에 길이 88.5m, 폭 3.5m의 스윙교를 설치했다.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나 홍수가 났을 때 교량이 분리돼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교량이다.

해당 업체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록



순천시가 2020년 동천에 설치한 스윙교.

〈순천시 제공〉

만 돼 있을 뿐,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교량을 건설할 수 없다. 교량 건설은 5명의 전문 건설기술인과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토부에 건설업 등록을 한 전문 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등록 없이 교량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스윙교 제작을 맡기고 교

량 설치하는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윙교는 보행 전용 인도 교량으로 도로교와 달리 통행 하중이 비교적 경미하고 순천에서 기존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스윙교 특성상 제작 비중이 90% 이상으로 제작과 설치를 모두 한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 더위 식혀줄 ‘쿨링포그’ 가동

나주시가 빛가람호수공원에 한 여름 찜통더위를 식혀줄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포그’ (사진)를 가동한다.

쿨링포그(Cooling Fog)는 물을 안개 형태로 고압 분사하는 폭염 방지 설비이다. 미세 물안개 입자를 지속적으로 분사, 기화열을 흡수함으로써 주변 온도를 3-5도 가량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기능도 갖춘 친환경 냉방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빛가람호수공원 여울다리 103m구간, 야외무대 앞 보도블록 200m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가

동을 잠정 중단했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대비해 본격 가동되는 쿨링포그는 오는 10월 15일까지 3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가동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분 가동 후 1분 휴식을 반복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쿨링포그에서 분사되는 물은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수돗물을 사용한다”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무더위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전국 유일 신안 ‘섬 가을 수국축제’ 9월 열린다

주변에 팜파스그라스 테마공원

신안군은 도초도 바다 위 수국정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 가을 수국축제’를 9월 말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여름꽃 전령사로 알려진 ‘섬 수국축제’를 개최해 축제 전후 4만 여명의 방문객이 도초도를 다녀갔으며, 수국공원, 환상의 정원, 자산어보 촬영지 등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도초도는 목포에서 54.5km 떨어진 섬 지역인 점과 인구수 3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축제 기간 인구수 10배 이상의 관람객이 도초도를 방문하는 축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현재 섬 가을 수국축제를 위해 목수국 전정 작업중에 있으며 축제기간 화려한 목수국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에 한창이다.

또한, 수국공원 주변에 팜파스그라스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을철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



신안군 도초도 수국정원.

〈신안군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첫 시도인 만큼 목수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의 다양한 볼

거리 제공과 지난 축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볼 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함평 백련마을 주민들 전통 살리기 팔 걷었다

‘옴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마을입구 보호수 산책로 조성

함평군 대동면 백련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통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18일 백련마을 주민들이 ‘청정전남 옴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마을 입구 보호수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사진)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시책사업인 ‘청정전남 옴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은 3년간 총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백련마을은 매년 정월 대보름 마을 사람들이 모

여 선독거리 제사를 하는 전통이 남아있으며, ‘백련(白蓮)’이라는 이름처럼 마을에 작은 우물을 조성해 하얀 연꽃을 띄우는 등 마을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옴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잡목으로 우거진 보호수 주변을 깨끗이 정비했다. 또한 보호수 주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꽃을 심고 야자매트 산책길을 설치했으며, 마을 기금을 활용해 어른들이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했다.

임철용 백련마을 이장은 “보호수로 둘러싸인 공원에 어른들이 산책을 하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신다”며 “앞으로 공원 앞 저수지를 복원하고 하얀 연꽃을 재현해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해남군, 금어기 대상 어종 특별 지도점검

해남군은 8월 20일까지 금어기 대상 어종의 유통 판매행위 지도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어기 어종인 낙지(6월21일-7월20일), 꽃게(6월21일-8월20일) 주꾸미(5월11일-8월31일) 등이다. 또한 수컷 붉은대게는 7

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금어기 어종을 불법 포획 및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란기에 접어든 낙지, 꽃게 등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어업인들과 시장 상인들이 금어기와 원산지표시를 잘 준수해 풍요로운 우리 해남의 바다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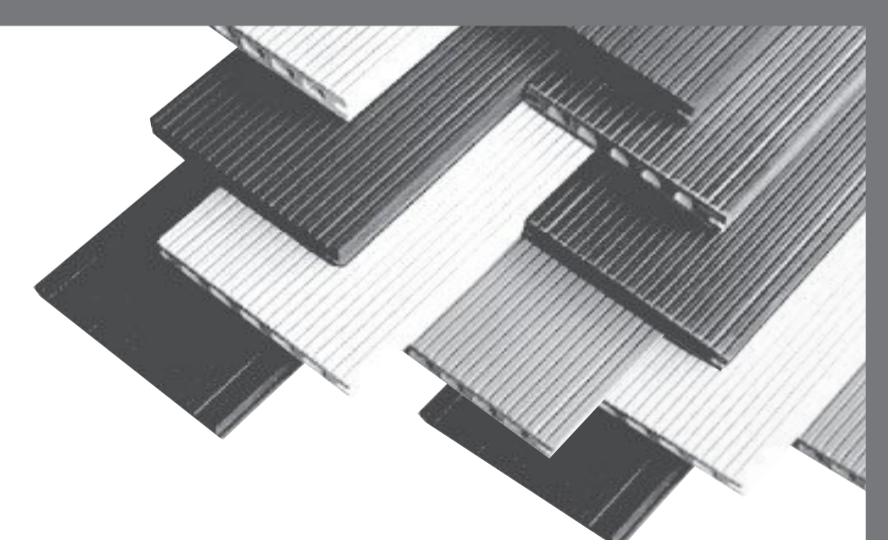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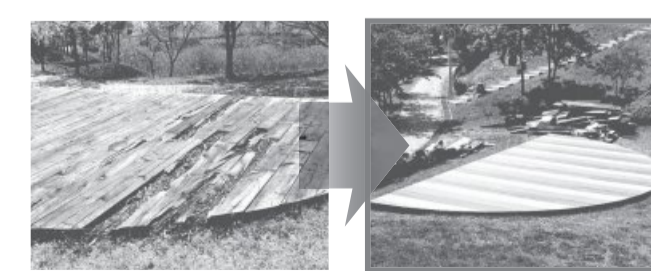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